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합심

마음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審 살피갈 내일!
: 살필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2019
05

Vol. 516

2019.05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을 '합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합심은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강한 추진력을 얻어 목표에 함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월간 <교정>에서 함께 이뤄나가는 합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5월호 (통권 516호) 63권 5호

www.correction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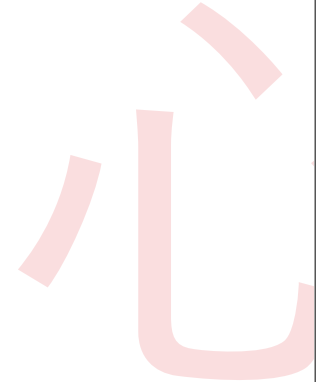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합심(合心)의 이익

08 사람을 읽다
교정공제회 이사장 홍남식

12 역사를 품다
한민족 '합심'의 역사와 고종의 '국민국가선언'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보는 '합심(협동심)'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심고
봄날의 아름다운 향연, 음악으로 마음을 보듬다
(영월교도소)

20 영화 같은 하루
천안개방교도소 어벤져스와 함께한 '영화 같은 하루'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24 일상 상담소
내 차, 새 차처럼 관리하는 방법

26 마음 나침반
당신이 생각하는 합심의 중요성은?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철수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엇을 볼까?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고전과 미래를 동시에 즐기는 쿠알라룸푸르 관광지
+ 숙소 내에서 유용한 표현

32 신조어백과
관태기&뇌피셜

34 글로벌 핫클릭
멕시코, 마지막 섬교도소 폐쇄...
"수용자들은 남고 싶어했다" 외



살펴갈 내일!

36 여민 교정
집중인성교육과 장애인교육의 선두주자
여주교도소

40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

42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가족에게...

44 교정을 말하다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上)

50 국민이 전하다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

52 카드뉴스
「형집행법」 일부 개정, 그 주요내용은?

54 HEADLINE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56 NEWS
본부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낱말퀴즈

65 이 달의 추천 도서

66 독자의 소리

“근자는 조화로우나 부화노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노동하나 조화롭지 않다”

- 공자(중국 고대 사상가) -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의 하나는 바로 '합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심은 어떤 일에 대해 단순히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성향에 맞춰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서 1+1=2가 아닌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심'의 결과이지 않을까.

합심(合心)의 이익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백지장은 흰 종이 한 장을 말한다. '맞들다'는 마주 든다는 뜻이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이다. 무거운 짐을 들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함께 손을 보태고 생각을 보태서 하면 일이 수월해지고 결과도 좋아진다.

'동냥자루도 마주 벌려야 들어간다'는 말도 있다. 동냥은 다른 사람에게 밥 같은 것을 거저 달라고 비는 것을 말하는데, 이 동냥하는 자루에 얻은 밥이나 물건을 넣을 때에도 자루를 마주 잡고 벌리면 넣기가 낫다는 뜻이니, 이 또한 함께 하는 일의 이익에 대한 말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도 잘 알려져 있다.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그릇의 넉넉한 밥이 된다는 것이다.

"이월매조다/ 팔월공산이다/ 똥 안 먹고/ 똥한다나./ 하루종일/ 80원 잃었다."이 시는 김용택 시인의 시 '마을회관'이다. 김용택 시인은 모교인 덕치초등학교에서 40여 년 교직에 몸담았고, 지금은 고향인 섬진강변 진메마을에 살고 있다. 이 시의 풍경은 내가 자란 시골 마을의 요즘 풍경이기도 하다. 내 고향 시골의 마을회관에도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밥 지어 먹고, 말을 나눠 인심(人心)을 교환하고, 종일 쳐야 80원을 잃는 화투도 놀이 삼아 친다. 동네는 하나의 대식구에 다름 아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에서는 일손을 거두고 일손을 모아서 공동의 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리를 놓거나, 무너진 독을 다시 쌓거나, 농로를 닦거나 할 때에는 집집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함께한다. 마을의 길을 깨끗하게 비질하고, 쓰레기를 줍고, 개천을 치우는 일에도 협동한다. 눈이 많이 온 아침에는 각자의 집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의 눈을 먼저 치우고, 우리 마을에서 옆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 쌓인 눈을 더불어 치운다.

마음도 하나의 마음처럼 사용한다. 한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한 집의 식구가 병을 앓으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간병한다. 결혼이나 환갑을 맞은 집이 있으면 함께 전을 부치고 떡을 빚고 고기를 장만한다. 그 집의 슬픈 일이 내 집의 슬픈 일이요, 그 집의 경사가 내 집의 경사이다. 한 집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함께 곡을 하고, 상여를 매고, 묘혈을 파서 고인을 떠나보낸다. 노동과 합심의 공동체인 셈이다.

봄의 농사철이 시작되어도 마찬가지다. 저수지의 물을 언제 뺄 것인지로 모여서 결정한다. 그래서 위 눈에 물이 그득하게 차면 아래 눈으로 물길을 돌려 물을 내려보내고, 또 그 아래 눈에 물이 그득하게 차면 더 아래에 있는 눈으로 물길을 돌려 물을 내려보낸다. 들일을 하면서 들밥이 오면 아래 눈 위 눈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밥을 나눠 먹는다. 모심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집집마다 모내는 날을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서 모내기를 한다. 노동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즐거운 일에 마음을 보태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에 마음을 보태면 슬픈 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합심(合心)의 이익이다.

김명수 시인의 시 가운데 '그렇게'라는 시가 있다. "꽃은 여러 송이이면서도 한 송이/ 한 송이이면서도 여러 송이/ 나무도 여러 그루이면서도 한 그루/ 한 그루이면서도 여러 그루/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모습/ 한결같이/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 한결같이/ 향기와 푸름과/ 영원함은 그렇게/ 꽃은 여러 송이이면서도 한 송이/ 한 송이이면서도 여러 송이/ 나무도 여러 그루이면서도 한 그루/ 한 그루이면서도 여러 그루"

꽃과 나무와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단독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집단 속 존재라는 뜻으로 읽힌다. 나와 집단의 관계, 나와 남의 관계도 이처럼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붙어 있기도 한 것이다. 나의 살림을 가꾸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살림을 가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심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남의 그릇됨이나 잘못된 행위를 분수 이상으로 탓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방을 향해 절을 하되, 동쪽을 향해서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남쪽을 향해서는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거만한 마음이 예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가르침도 있다.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털어서 남의 이익을 채워주겠다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 내가 너무 많이 가져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까닭이다. 내가 좀 손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심의 공동체는 잘 유지되고 나아지게 된다. 그리고 내 몫의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생각도 필요하다.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게 아니라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보다 더 정성을 다해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도 또렷한 내 어릴 적 기억 가운데 하나는 내가 동네 친구의 집에 가서 놀다 그 집의 밥을 얻어 먹고 온 일이다. 정신없이 놀다 어느새 어두워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친구의 어머니께서 옷소매를 붙잡아 그 식구들의 밥상 돌레에 앉혀준 따뜻한 밥을 내주시던 장면이다. 나는 그 집의 식구가 되어 푸지게 밥을 얻어먹고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친구 어머니의 이러한 마음이 시골 마을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왔고, 또 합심을 보호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내 것, 남의 것 구별하지 않을 때 나는 여러 사람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도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런거리의 뒤란』, 『맨발』, 『가재미』, 『그들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교정공제회 출범 4년, 전문성 강화하고 투명성 높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교정공제회. 금융의 메카인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선 교정공제회의 위상이 남달라 보인다. 이곳에서 만난 홍남식 이사장은 지난 4년간 교정공제회가 걸어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교정공제회가 출범한 후,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했지만, 지금은 각 교정기관의 회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대위원회가 주요 운영 사항을 의결합니다. 즉,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산, 결산, 금융, 부동산 투자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직원을 채용하는 등 여러 모로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교정공제회는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등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자산운용가 등 외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자문단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홍남식 이사장은 “2017년에 금융의 중심부인 강남 테헤란로에 등지를 튼 것도, 전 직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결기구 두고,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에 역점

현재 교정공제회는 부동산투자부, 금융투자부, 사업관리부, 경영기획부 등 부서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홍남식 이사장은 “그동안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는데, 교정공제회가 들어서며 전문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역점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들(회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 이사장은 “교정공제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정공제회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 등 부동산 사업을 회전시키면서 자산 증식에 나서고 있다. 공모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투자 대비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회원 부담금은 매월 20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최근 30만 원으로 올리면서 종전보다 6,200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노후 안정에 더

홍남식

교정공제회 이사장

지난 2015년 교정공제회가 출범한 이후, 어느덧 4년이 흘렀다. 32년의 역사를 가진 교정협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들어선 교정공제회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와 희망도 커져 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교정공제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자 한다. 꽃향기 날리는 4월 중순, 교정공제회 사무실에서 홍남식 이사장을 만났다.



“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부담금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교정공제회는 회원부담금을 증액하여 추후에 회원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회원에게 돌려주는 급여이율이 금년 7월 1일부터 3.5%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는 복리로 계산되기에 시중의 금리로 따져 보면 약 5%라는 높은 이율이다. 한마디로 회원이 퇴직할 때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부담금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교정공제회는 회원부담금을 증액하여 추후에 회원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

자산규모 110% 증가, 회원의 복리 향상에도 만전

교정공제회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로, 교정공제회의 자산규모가 혁신적으로 증가했다. 교정공제회의 전환 연도인 2015년 말 자산규모 1,156억에서 2018년 2,400억으로, 약 110%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 창출과 회원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한편, 교정공제회는 회원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 1인당

7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 및 대상자의 감소 추세로, 추후 장학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들의 복리 향상 및 복지 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1년에 4차례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한 번에 40명의 회원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부부 동반이므로 80명을 지원하는 셈이다. 1년으로 치면 320명의 회원 및 가족이 제주도 여행으로 휴가를 즐기는 셈이다. 공제회는 또한 회원 가족이 콘도를 이용할 시에 할인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이며, 더 많은 기업과 제휴하여 회원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사거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도록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류업체, 테마파크, 치과, 안과 등의 업체와 제휴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뢰에 부응해 최선 다할 때 서로가 ‘합심’

홍남식 이사장은 “대여제도를 개선한 것도 교정공제회의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전에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 대여한도액을 책정하였으나

현재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여한도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회원이 어려움 없이 대여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정공제회는 결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2018년부터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했다. 조직도 관리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부동산투자부를 따로 두어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화합하는 조직. 홍남식 이사장 이하, 2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교정공제회는 ‘합심’으로 하나 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홍 이사장은 “인원이 20명이라 함께 모이면 대가족 같은 느낌”이라면서 “월례회 때 한데 모이면 직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정공무원 및 회원들이 교정공제회를 신뢰하고 우리는 그 신뢰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서로가 ‘합심’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교정공제회 사무실 입구에는 이곳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크게 써져 있다.

‘교정공제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행복한 교정 가족, 신뢰받는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보면서, 교정공무원과 더불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새삼 느끼게 된다.



홍남식 이사장이 교정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정공무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값진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30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있었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신의 일이 고되고 어렵지만 또 그만큼 보람과 긍지가 남다른 직업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더욱 잘 알고 느낄 테니까요. 어디에서 일하든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더욱 힘내십시오, 파이팅!

한민족 '합심'의 역사와 고종의 '국민국가선언'

'합심'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단합이 잘 되고, 합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는지 우리 민족의 합심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자.

위기 때마다 이겨낸 우리 민족의 합심

5,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냈다.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도, 국권을 침탈당한 일제시대 때에도, 그리고 나라가 파산 위기에 놓인 IMF 때에도 국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합심으로 이겨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 전체에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공통된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질 때는 어김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국민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강한 주권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결력과 협동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을까.



합심을 만들어 낸 '우리 의식'

한민족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대동강 이남을 통일한 7세기 중반 이래, 더 늦게 잡아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10세기 중반 이래, 민족단위의 국가생활을 영위해 왔다. 이후 한반도 이남의 고정된 국토와 비교적 단출한 종족구성, 특유의 언어, 통일적 중앙집권체제, 빈번했던 외세와의 투쟁 과정에서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은 더욱 굳어졌고, 민족의 원형이 잡혀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대로 인해 그 강도는 약했지만 우리는 일정한 민족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공유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은 일찍부터 한반도 일원을 무대로 대를 이어온 민족과 국가를 동일문화권, 동일역사권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정체 의식과 함께 서로를 동질적 공동운명체로 생각하는 '우리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몽고침입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외침이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진해서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나선 것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일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우리 의식'이 수 대를 거쳐 전해져 자연스럽게 '합심'으로 발현된 것이며, 그 결과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공동체 수호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아닌 '주인'으로

오래 전 삼국시대 때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단합된 힘이었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었다. 하지만 근대시대 이전 조선

“고종은 “대한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것이다” “독립이려야 나라며, 자유려야 민이며, 나라는 민이 쌓인 것으로 민은 선한 무리다”라는 교서를 내림으로써 최초로 나라는 국민들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시대까지는 그 백성들의 힘이라는 것이 주인의식을 갖고 발현된 것은 아니다. 백성은 오로지 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나라는 왕의 것이었고, 소수의 양반들이 일반 백성을 지배했다. 백성들도 스스로를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시됐던 시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길 무렵인 1909년 3월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은 “대한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것이다” “독립이려야 나라며, 자유려야 민이며, 나라는 민이 쌓인 것으로 민은 선한 무리다”라는 교서를 내림으로써 최초로 나라는 국민들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고종은 교서를 내려 '국민국가선언'을 하면서 “나의 부덕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나 만백성이 있으니 이미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이 이뤄지면서 백성들의 항일운동은 더욱 거세고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개 국가요소 중 하나로 치부됐던 백성이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고, 왕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사실 고종황제의 '국민국가선언'이 있기 전부터도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했다. 아니 백성이었다. 그것은 온갖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합심'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나의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교정〉 독자에게 들어보는 ‘합심(협동심)’

5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합심(협동심)’입니다.
합심은 개개인의 마음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을 말합니다. 협동심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합심은 생각 이상
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시대에
우리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은 협동심을 잘 발휘하고 계신가요?
이번 호 주제인 ‘합심(협동심)’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합
심(협동심)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았습니다.

교도관은 원래 개인적인 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옆
직원들이 도와줘야 사고 없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협동심이 중요해지는 셈이지요. 우리 여주교도소는
전 직원들이 매우 뛰어난 협동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매우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교도소 황남용 교위〉

제가 생각하는 협동이나 합심은 개인과 개인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와 부서, 단체와 단체도 합심을
통해 무궁무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의 현대사회는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개방교도소 이희성 교사〉

협동이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함께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이나 단합은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아진 마음을 통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배, 세 배의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천안개방교도소 임완진 교도〉

합심이나 협동심하면 저희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를 따라갈 곳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과장님을 필두로 뚝뚝 뭉쳐서 누군가의 의견에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부서원들끼리도 단결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천안개방교도소 노호성 교위〉

저는 과에서 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행사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진행이
되지요. 우리 소의 경우 어떤 행사든 늘
직원들이 많이 찾아와 응원해주고 협동심을
발휘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주교도소 송재훈 교사〉

저는 어려서 협동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체육대회

때 줄다리를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우승하면


학급에 통닭을 쏘신다는 말에 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로소 협동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주교도소 권동혁 교도〉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채택
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담다’의 참여는 마지막 페이
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correct2015@naver.com
메일 주소 yjw1219@korea.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음악회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향연, 음악으로 마음을 보듬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히 보듬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는 이들. 바로 교정공무원이 아닐까. 일선 현장에서 그 어떤 일보다 어렵고 고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 이제는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을 차례다. 화창한 봄날, 이들을 위해 영월교도소에 '교정은 행복을 신고'가 떴다.

영월교도소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휘돌아 가는 동강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 강원도에서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영월이다.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위치한 영월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자치 교도소이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4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봄 햇살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하듯, 이른 오후 교도소에 도착해 차분하게 준비 작업을 하는 이들은 영월교도소 직원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공연팀이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가 마련되었다. 강당에는 일찌감치 공연팀이 와서, 음향과 반주, 마이크 등을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음악회에 초청된 청중의 마음으로 즐기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강당으로 직원들이 속속 들어온다. 앞자리부터 앉기 시작해 제법 객석이 채워졌다. 이날 영월교도소 직원들은 음악회에 초청받은 청중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와 함께 기대감이 묻어 있다. 이번 음악회는 영월교도소 최종문 교위의 색소폰 연주로 막을 열었다. 애잔하면서도 힘 있고 강렬한 색소폰 연주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면서 청중의 마음을 뜨겁게 흔들어 놓는다.

첫 연주가 끝나자 직원들은 ‘앙코르’를 외치고, 최종문 교위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 곡 더 들려드리겠다”면서 연주를 이어갔다. 동료의 멋진 색소폰 연주가 끝나자 힘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어 공연 팀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공연 팀은, 노래를 담당하는 뮤지컬 배우 이희주 씨와 연주를 맡은 재즈피아니스트 김태수 씨로, 두 명의 듀엣으로 구성되었다.

단정한 용모에 밝은 미소를 가진 이희주 씨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한다. 그는 “직원들이 귀를 활짝 열고 마음껏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첫 곡을 들려 주었다. 음향에 맞춰 부른 첫 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모은 발랄한 노래. 그는 뮤지컬 배우답게 연기하듯 자유자재로 노래를 불렀다. 마치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방금 부른 이 노래에서 총 몇 명의 공주가 나올까요?”라며 깜짝 퀴즈를 낸다. “영어로 부른 노래인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걱정되던 찰나, 짧지 않은 침묵이 흐른다. 그는 재치



있게 힌트를 주었다.
 “아무 숫자나 말해보세요! 힌트 드립니다. 10명 미만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7명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쓰세요!”
 그때 누군가 외쳤다. “8명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자에게는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상품권’이 돌아갔다.

피아노 선율과 청아한 목소리가 감동을 빛다

곧이어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 ‘너의 의미’가 귓가에 울렸다. 피아노 반주에 맞춘 잔잔한 멜로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적시며 듀엣 공연으로 펼쳐졌다. 귀가 호강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일까.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청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합쳐져 만들어내는 음악은 천상의 선물처럼 귀하게 느껴진다. 청중은 잔잔한 음악에 푹 빠지고, 그야말로 힐링이 따로 없다. 이어진 곡은 그 유명한 명곡인 ‘넬라판타지’이다. 이 노래를 열창하는 순간, 가수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폭발한다. 작은 체구지만 노래하면서 뽀

어나오는 에너지와 열정이 음악회를 뜨겁게 달군다. 피아노의 선율,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이 명곡을 더욱 빛내면서 감동을 빚어낸다.
 봄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벚꽃엔딩’을 부를 때는, 하얀 벚꽃잎이 우수수 날리는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떠올리며 저마다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중간 중간에 들어간 ‘깜짝 퀴즈’는 꽤 쓸쓸한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난센스 퀴즈에는 다들 머리를 굴리느라 간간이 침묵이 이어졌는데, 객석에서 엉뚱한 답이 나올 때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끝내는 누군가 정답을 말했고, 문화상품권을 획득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흘날리는 벚꽃처럼 4월의 아름다운 추억 남겨

음악회의 열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어느덧 마지막 곡인 이문세의 ‘봄의 노을’을 열창하였다. 어느새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되었고 청중은 흥겨움에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특별히 김영대 소장이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영대 소장은 “우리 교도소에서 직원들을 위해 좋은 행사가 열리는데, 소장이 빠질 수 없다”면서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 직원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동안 펼쳐진 음악회가 끝나고 영월교도소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전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노래하니, 절로 음악에 빠지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음악회를 마련해 준 ‘교정은 행복을 신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마음을 보듬은 시간. 그렇게 영월교도소 직원들은 4월의 마지막 날을 의미 있게 보냈으리라. 이날의 작은 음악회가 흘날리는 벚꽃처럼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천안개방교도소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영화 같은 하루'

직장인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는 어떤 날일까. 아마도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평소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 보는 것은 아닐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일상에서의 가벼운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화 같은 하루'일 것이다. 이번 호 월간 <교정>의 '영화 같은 하루' 주인공들은 바로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이다. 그들이 그려내는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자.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만난 영화 같은 하루의 주인공들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그리고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4월 29일,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을 만나러 차에 몸을 실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에 '혹시 비는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아니나 다를까 천안으로 내려가는 차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행히 폭우가 아닌 가랑비 수준이었지만 언제 굵은 빗줄기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다. 행여 오늘 계획된 하루를 망칠까 노심초사하며 속도를 냈다.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화 같은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서다. 월간 <교정>을 통해 진행되는 '영화 같은 하루'는 정말 영화 속에서 보는 것 같은 휘황찬란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하루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하루'를 신청하고 함께 진행하는 직원들의 가슴에 남아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 보고 살짝 엮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따뜻한 날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덧 천안개방교도소의 정문이 눈에 들어온다. '영화 같은 하루' 진행 차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청사 정문에 마중을 나온 한 사람이 보인다. 한 눈에도 총무과 직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 '영화 같은 하루' 때문에 왔다고 하니 방금 통화한 총무과 직원이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사람 좋은 인상으로 미소를 띠며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라고 화답해준다. 우리를 마중 나온 총무과 직원의 뒤를 따라 본관 입구 좌측에 자리한 총무과 사무실로 들어섰다.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총무과장의 이벤트

이번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의 '영화 같은 하루' 신청자는 바로 김현철 총무과장이다. 보통 '영화 같은 하루'에 신청을 하는 직원들은 교위나 교도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간 <교정>을 매번 보는 편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짚을 내서 보는 편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 월간 <교정>을 보는데 유독 눈이 가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바로 '영화 같은 하루'였죠.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현철 과장은 '영화 같은 하루'에 신청을 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군산교도소에서 진행한 '영화 같은 하루'를 보고 우리도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4월호를 보자마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신청이 잘 됐는지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5월호에 진행하게 됐다고 연락이 오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의외성의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놀랐고, 기쁨은 배가 되는 법. 신청을 하긴 했는데, 잘 된 건지 확인할 길 없이 있고 있던 차에 연락을 받은 김현철 과장은 그래서 더 놀랐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김현철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총무과 직원들은 '영화 같은 하루'를 위해 조금은 이른 퇴근을 준비했다. 퇴근을 위해 사복으로 환복을 한 직원들을 보니 처음 총무과에 들어섰을 때의 그 근엄하고 정숙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뿜내고 있었다. 퇴근을 해서 그런지, '영화 같은 하



“어우~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걱정 마십시오. 보기보다 금방 없어질 겁니다.”
 차례로 나오는 음식의 양에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정창주 교감에게 노성호 교위가 걱정하지 마시라며 너스레를 떤다.
 모든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면 서도 아재들의 수다는 끊이질 않는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어찌 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이 야깃거리가 많은가 보다. 아줌마들이 모이면 카페 하나가 초토 화 되는데, 아재들이 모이면 식당이 초토화될지도 모르겠다. 시끌벅적한 식사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영화 관람을 하러 이동 할 시간. 이번에 관람할 영화는 요즘 가장 핫하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다.



루에 참여해서인지 몰라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색다른 식사,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배려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만의 영화 같은 하루 아니 영화 같은 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오니 날은 계속해서 흐 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빗줄기가 굽지는 않다. 김현철 과장이 월간 <교정>에 신청한 ‘영화 같은 하루’의 내용은 총무과 직원 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식사와 영화 관람이다. 우선 식사 를 위해 미리 예약해 놓은 식당을 향해 출발했다. 총무과 직원 들이 미리 선정한 메뉴는 ‘돈가스’. 웬지 40~50대 중년의 남 성들이 고른 메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조금은 이른 저녁 식사라서 그런지 식당은 한산하다.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를 고르는 총무과 직원들의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 린다. 왈자지껄한 가운데 하나하나 메뉴를 정하기 시작한다.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왕돈가스’, 트렌드에 맞춰가는 ‘눈 꽃치즈 돈가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큐브스테이크’ 등 고 르는 메뉴들도 다양각색이다. 무엇보다 이번 메뉴 선정의 백 미는 아재미(?)를 발산하는 ‘얼큰 떡볶이 돈가스’. 역시 느끼함 보다는 얼큰함을 선호하는 아재들의 입맛을 숨길 수는 없는 눈치다. 모든 직원들이 메뉴를 고르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 리는 동안 아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직원들은 5월호 교정지를 보면 정말 많이 부러워할 것 같다.”

“하필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으니 어쩔 수 없지요 뭐”

누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화 같은 하루’를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김 현철 과장은 “오늘 같이하지 못한 직원들한테는 따로 식사를 같이 하던지 해야지...”라며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까지 챙기는 다정한 면모를 보였다.

“자이 시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과장님께 모두 박수~” 정창주 교감이 ‘영화 같은 하루’를 신청해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김현철 과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사실 김현철 과장의 ‘영화 같은 하루’ 신청은 직원들에 대한 짝 짝 이벤트 성격이 크다. 신청 자체를 직원들 모르게 했기 때문 이다.

“아닙니다. 아무런 상의 없이 신청을 했고, 정확한 날짜가 정 해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당황스러웠을 법도 한데, 한 마디 불 평 없이 모두가 흔쾌히 응해주서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고, 게다가 직원들이 피곤함을 느 낄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 앞섰다는 김현철 과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직 원들 덕분에 오히려 자신이 직원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선의의 마음보다 더 큰 따뜻함을 느꼈다고 되려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런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직원 들이 지위고하의 구분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주문한 음식이 하나씩 테이블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들 음식을 보면서 그 크기와 비주얼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다.

영화 같은 하루의 주인공 아닌 영화 속 주인공 처럼

극장에 들어선 총무과 직원들. 어디를 둘러봐도 성인 남자끼 리 영화를 보러 온 팀은 총무과 직원들이 유일하다. 아마도 다 들 중고교시절 시험을 마치고 단체로 영화 관람을 온 이래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영화 관람을 온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그 러고 보니 식사의 메뉴 선택에서 영화 관람까지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문화이지 않을까 싶다. 무뚝뚝한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는 조금은 민망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들 어떠 하고 저런들 어떠하라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과 색다르고, 즐 거움이 가득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약간의 민망함이야 ‘영 화 같은 하루’의 양념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관람을 위해 티켓팅을 하고 상영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아재들의 수다는 계속 이어졌다.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앗, 헐크다”라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한곳으로 쏠린다. 바로 노성호 교위다. 그리고 보니 우람한 체격과 큰 키가 정말 영화 속 ‘헐크’와 비슷하다. 모든 직원들이 긍정의 고개 끄덕임을 보 이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관람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한 이상덕 교감이 넌지시 한 마디를 건넨다.

“30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과장님께 다 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교정본부 담당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색다르고 좋 네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가끔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아니고 정말 가끔이요. 하하하”

‘영화 같은 하루’에 참여해 색다르고 기분 좋은 문화를 접했다 는 이상덕 교감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총무과 모든 직원 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오가는 대화 도중 영화 상영 시간이 다가왔고, 모두가 영화 관 랐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월간 <교정> 제작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후, 상영관 안으로 이 동했다. 상영관 안으로 들어서는 여덟 남자의 뒷모습이 마치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들 같았다.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의 ‘영화 같은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 됐다.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 고자 한 직장 상사. 그리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 이벤트 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부하직원들. 방식은 다르 지만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은 같았다. ‘영화 같은 하루’를 통 해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직원들의 동료애가 한 단계 더 돈 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내 차, 새 차처럼 관리하는 방법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2천320만2천555대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0.95대를 가지고 있는 꼴이 된다. 자가용 승용차로 한정했을 때도 가구당 0.8대에 이른다. 이처럼 차량은 우리 생활에 보편화 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차를 오랫동안 새 차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 번째, 휠밸런스와 휠얼라이먼트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함께 점검해야 할 요소가 바로 휠밸런스와 휠얼라이먼트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둘의 차이를 헷갈려하고, 그중 일부는 두 가지를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간혹 휠밸런스와 휠얼라이먼트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휠밸런스는 휠의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휠에 미세한 무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각 부분의 무게 차이를 같게 만들어주어 무게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휠얼라이먼트는 차량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주행을 지속하면 스티어링 휠과 타이어의 정렬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렬을 바로 맞춰주는 것이 휠얼라이먼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증상이 보이면 바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관리 첫 번째, 주기적인 엔진 오일 교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판매 영업사원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엔진오일만 제때 교체해도 별 탈이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오일입니다. 이런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준다면, 엔진 고장으로 인한 자동차 수명 단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윤활작용(엔진 부품 마찰 감소), 냉각작용(엔진 과열 방지), 방청작용(유막 형성으로 인한 부식 방지), 응력 분산작용, 기밀작용(가스의 엔진 하부로의 누출 방지), 청정작용(불순물을 오일필터로 운반) 등의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오일의 교환 주기는 보통 5,000km에서 10,000km 사이에 교체하지만 주행환경이나 운전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엔진오일을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순정오일과 합성오일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내 차에 맞고, 내가 원하는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 관리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품이 바로 브레이크, 즉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가 제동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오일’인데, 보통의 경우 2년 또는 20,000km마다 교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브레이크 오일 교체시기를 놓친다면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발생하는 ‘베이퍼 로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브레이크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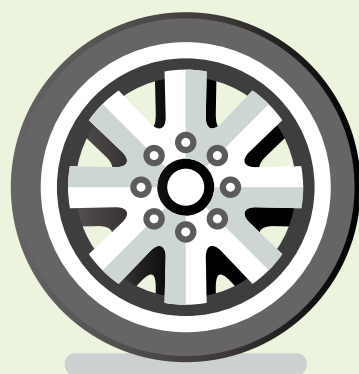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할 때 브레이크 패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야 제동이 되거나 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 ‘끼이익-’ 소리가 난다면 마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 휠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증상

- 일정 속도에서 핸들의 떨림 현상이 있다.
- 제동 시 차량의 편류 및 진동이 느껴진다.
- 타이어 조기 마모, 편마모 현상이 발생한다.

* 휠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을 때 증상

- 핸들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린다.
- 타이어 편마모가 진행되고 제동능력이 저하된다.
- 주행 시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



두 번째, 타이어 관리

자동차의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기도 하면서 승차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신발도 오래 신다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닳는 정도가 다르듯이 타이어도 동시에 네 개를 교체했어도 운전습관, 도로의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륜구동차는 앞쪽 타이어가, 후륜구동차는 뒤쪽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또한 좌우의 마모상태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 구입 후, 또는 타이어를 교체한 후 10,000km가 되었다면 전체적인 마모상태를 확인하고 앞, 뒤 또는 크로스 교체를 해주면 좋습니다.



기타 차량 관리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며, 라디에이터와 관련 부품의 부식과 오염을 예방하는 부동액은 40,000km 정도 주행했을 때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속기 오일 역시 40,000km마다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50,000km 정도 주행했다면 자동차 하부 점검을 해주는 것이 필수이니 꼭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겨울철을 지나 요즘과 같이 따뜻한 봄이 되면 차량 세차 시 반드시 하부 세차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차량을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합심의 중요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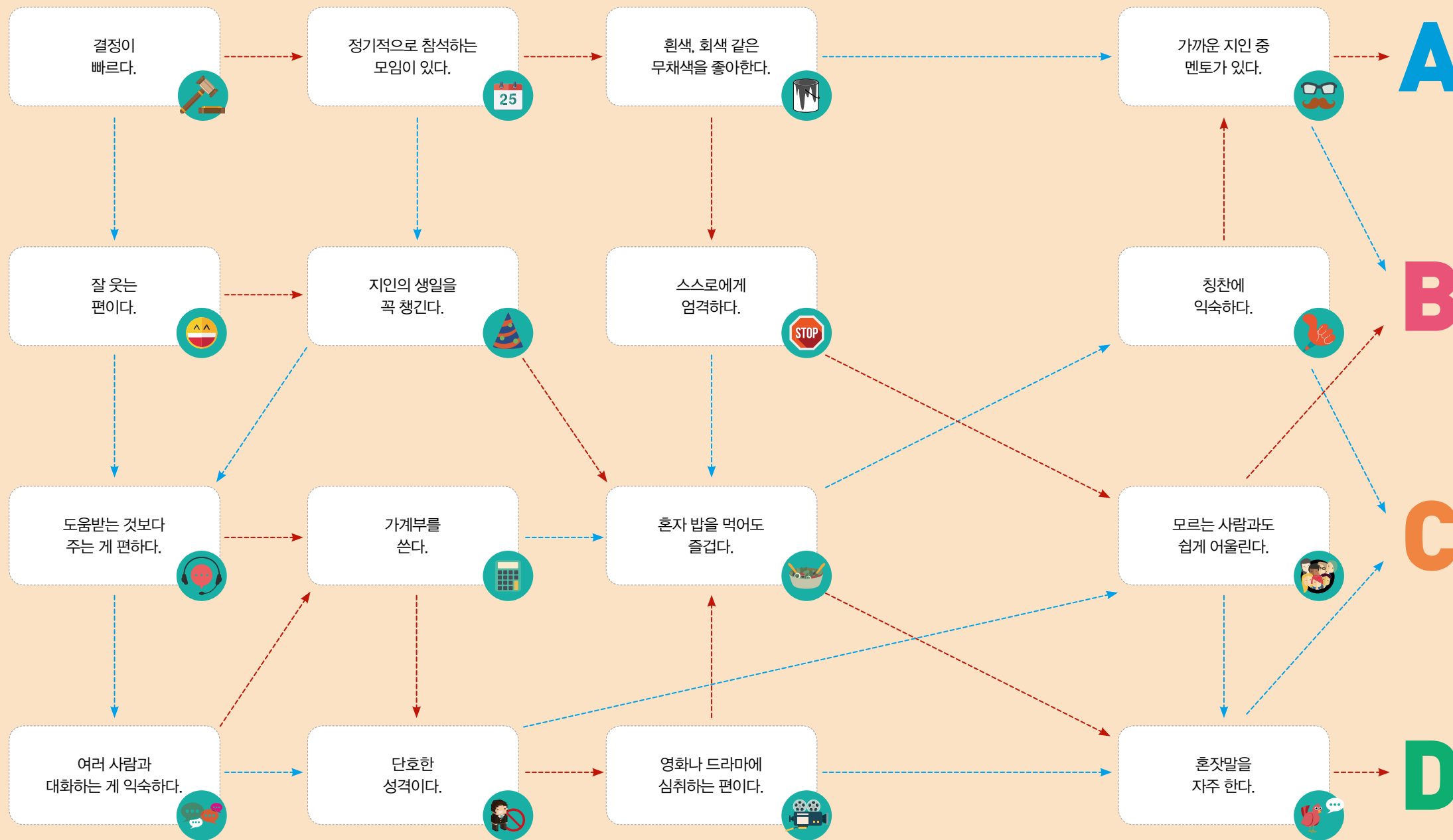
---> YES
---> NO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하는 일. 합심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될지도 모른다.

스스로 고뇌하는 걸 중요시하거나, 그보다 여러 사람과 힘을 모으는 데 비중을 두거나.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

참고서적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정종진, 시그마북스)

START



합심으로 산다
당신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빛을 발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팀원과 어긋나면 접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모란 생각은 유연하게 다듬을 줄 알죠. 여러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 데 100%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합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방법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합심한 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합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혼자만의 사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필요한 순간에는 있는 힘껏 합심하고, 그 후 얼마간은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과 충만한 배려심이 합심의 원동력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맞춘 시간만큼 자신을 돌보며 다음번 합심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죠.

합심은 선택일 뿐
목적지향형 합심을 추구하고 있나요? 합심하는 것을 업무의 옵션으로 여기는군요. 목적에서 벗어난 회의나 결과 없는 토론을 경계하고, 합심만큼 몰입의 중요성을 높게 삼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선을 긋는 모습이 냉정해 보이기도 한답니다.

알아서 척척척, 인생은 마이 웨이
꼭 필요할 때만 동료에게 손을 벌리는 당신. 합심하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군요.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라서 마음을 모으는 게 잘 안될뿐더러, 굳이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같은 '기센' 모습, 강한 카리스마로 팀원을 사로잡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철수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엇을 볼까?



고전과 미래를 동시에 즐기는 쿠알라룸푸르 관광지 + 숙소 내에서 유용한 영어 표현



Kuala Lumpur

위치 말레이반도 서해안 중부
인구 약 1,796,200명
면적 244 km²
비행시간 최소 6시간 2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1시간

소개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로 말레이반도 서해안 중부의 산록지대에 있으며, 켈랑강 어귀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다. 연간 기온이 영상 21도~33도로 1년 내내 더운 열대기후이다.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3~4월, 9~11월에 많은 비가 내린다. 따라서 쿠알라룸푸르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적기는 1~2월, 6~9월, 12월이다. 쿠알라룸푸르의 공식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영어도 널리 사용되기 대화하기에 불편함은 없다. 다문화, 다종교 도시인 이곳은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메가 세일 카니발' 기간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기간으로 최대 70%까지 할인된 비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바투동굴

쿠알라룸푸르 북쪽에 있는 동굴로 1878년 미국의 박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힌두교 무르간신의 전설이 깃든 동굴은 인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힌두교 성지로 알려진 힌두사원과 박물관이 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타이푸삼축제 기간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메르데카 광장

메르데카 광장은 '독립 광장'이라는 뜻으로, 해마다 독립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으로 꾸며진 8만 2,000m²에 이르는 거대한 부지에는 각종 음식점과 놀이 시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광장 모퉁이에는 1897년에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분수도 있다.



국립 모스크

이슬람교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푸른 지붕과 73m 높이의 첨탑이 우뚝 솟은 모스크로 기도실은 8,000여 명의 무슬림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슬리퍼 착용 및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는 출입이 금지된다.



수리아 KLCC

쿠알라룸푸르 중심에 위치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내에 있는 최신 복합 쇼핑센터다. 쇼핑센터 내에는 이세탄 및 팍스 백화점을 비롯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브랜드가 눈에 띈다. 수리아 KLCC는 쇼핑 시설과 레스토랑 외에도 아쿠아리움, 과학관, 영화관, 아트 갤러리 등을 갖추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

영어회화 표현

🏠 **숙소 내에서 유용한 표현**

There is no towel in the room. Could you bring it to us? **방에 수건이 없습니다.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There's no hot water in the shower.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요.**

I've locked myself out. Could you come and open the room? **키를 방에 둔 채 문이 잠겼습니다. 열어주세요.**

The guests next door are really noisy. Could we move into a different room? **옆방의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방으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price? **아침식사 가격은 포함된 건가요?**

Is access to the gym or spa included? **헬스장과 스파 이용도 가격에 포함되어있나요?**

Do you have a wake-up call service? **모닝콜 서비스해주사나요?**

Could I get a wake-up call for 7am tomorrow please? **내일 오전 7시에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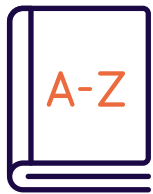
타인과 관계맺기 꺼려져(관태기) & 내 생각이 사실(뇌피셜)

신조어 '관태기'와 '뇌피셜'알아보기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한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관태기



용어 해석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을 관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관태기의 주원인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쉬운 온라인 관계에 익숙해진 것 등이 꼽힌다.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사람이 많은 모임이나 단체생활 등을 피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관태기'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용어 진단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이 동반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실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느낀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권태를 느낀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 즉 '관태기(관계+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들을 칭하는 '관태족'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다.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맺기를 불편해하고 '나 혼자 산다'를 외치는 이유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증가'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각자도생이 일상화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경제적·시간적 여유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면 인간관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혼과 만혼이 증가하고 이혼율마저 높아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아직 관태기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 퍼져있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 청소년층까지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선에서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뇌피셜



용어 해석

신체 부위의 하나인 '뇌(腦)'와 '공식적인'이라는 뜻을 지닌 영단어 '오피셜(official)'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로,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자신의 뇌에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을 뜻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주로 쓰이며 '나의 뇌에서 나온 생각', '나의 뇌에서만 공식적인 생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꼬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유의어 : 뺑피셜 = 완전 거짓임을 알고도 공식 발표인양 말하는 것.
지피셜 = 지인의 말 등을 아무 검증없이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문가 용어 진단

뇌(腦)와 오피셜(Official)을 합친 신조어인 '뇌피셜'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검증된 것 마냥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생각을 자신의 무논리로 밀고 내세우는 사람에게 '뇌피셜'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무근본, 무논리를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상상은 자유지만, 자신의 근거 없는 상상을 마치 사실이나 진실인 듯 적거나 말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잠시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이상행위가 비교적 자주 발견되기에 뇌피셜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뇌피셜'은 2005년 미국 방언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인 'truthiness'와 유사한 의미이기도 한데, 'truthiness'는 '믿고 싶은 진실', '주관적인 진실'이란 뜻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뇌피셜'은 긍정의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글이나 말에 '뇌피셜'임을 명시해 자신의 주관적 생각임을 미리 밝혀 논쟁을 피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정보의 재생산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생겨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고,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멕시코, 마지막 섬교도소 폐쇄... "수용자들은 남고 싶어했다"

멕시코의 마지막 섬 교도소인 '이슬라 마리아'가 폐쇄된 가운데, 수용자 중 교도소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세계적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자유로운 수용 환경 덕분에 사회에 나가는 것보다 이곳에 머물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마리아 섬에 있는 교도소 이슬라 마리아는 유럽의 식민지 시절부터 위험 등급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벽이 낮은 집에서 지냈다. 이들은 열대기후의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섬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헬스장, 정원, 목재공방을 이용하고 음악 수업을 받을 수도 있었다. 몇몇 수용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식생으로 알려진 마리아 섬이 '처벌, 고문 그리고 억압'의 증거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이슬라 마리아 교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 동부교도소 수용자팀, 토론타회에서 명문대학팀 제압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뉴욕 동부교도소에서 열린 토론타회에서 초록색 수의를 입은 수용자팀이 케임브리지대팀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 토론타회는 수용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1999년 시작된 '바드 감옥 이니셔티브'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토론 주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는가'였다.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팀은 이를 옹호하는 쪽에, 그리고 케임브리지대 학생팀은 반대편에 각각 서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심사위원들은 수용자팀의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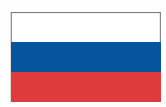
사실 이 수용자 팀이 세계적인 명문대 토론팀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팀은 지난 2015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명문인 미 하버드대 학생들과 2014년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의 토론 대결도 승리했다. 세계 명문대학의 토론팀을 잇따라 꺾은 이 팀은 교도소 교육 최고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물론 교화 및 형벌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호텔급 교도소 시험 중... 교화에 도움될까

뉴욕타임스(NYT)는 영국 웨일스의 버윈 교도소에서 '웰빙 교도소'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교도소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 안에는 자물쇠가 달려있고, 밖에서 들어가려면 먼저 노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노트북이 있고, 그를 통해 음식도 주문할 수 있다. 여느 호텔방에 대한 설명 같지만 사실은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 이곳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통틀어 가장 큰 교도소로 2017년 2월 문을 연 최신 시설이다. 수용 가능인원은 총 2,106명, 건설비로만 2억 2,000만 파운드(약 3,245억 원)가 들었다.

이곳은 수용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교화를 촉진해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 할 만한 모범 사례'를 만들려는 목표로 세워졌다. 다양한 게임과 종교 시설, 건강 센터와 체육관 등도 갖춰져 있고, 내부도 그림으로 밝게 꾸며져 있다. 개소 당시 '호텔급 럭셔리 교도소'라는 말까지 들은 이 교도소가 과연 수용자들의 교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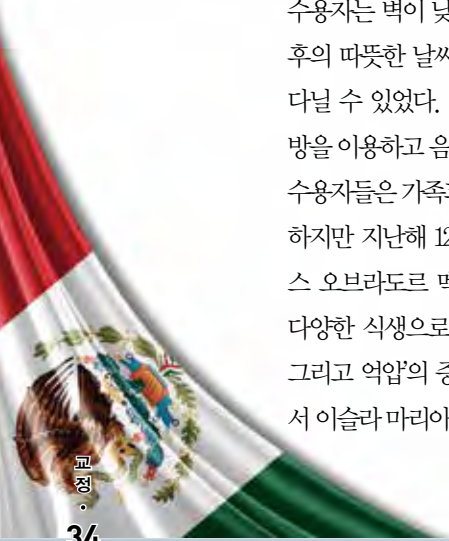


러시아, 북한과 '수형자 이송조약' 비준 절차 완료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러시아 의회 신문은 '러-북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조약은 2019년 2월 러시아 상·하원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3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형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에 정해졌다. 현재 러시아 내 교정시설에선 36명의 북한인이 복역하고 있으며, 북한 내 러시아인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인성교육과 장애인교육의 선두주자 여주교도소



여주시 가남읍에 자리 잡은 여주교도소는 집중인성교육과 장애인교육의 선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소내 분위기 역시 여주교도소가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으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뜨거운 가족애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있는 여주교도소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남다른 소통과 가족애

여주교도소는 1949년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으로 출발한 기관이다. 1954년 수원교도소로 개칭을 했다가 2001년 여주 신축시설로 이전을 하면서 이름까지 여주교도소로 바꿨으니 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이어 내려온 기관인 셈이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여주교도소는 그 느낌부터 여타 교도소와는 조금은 다른 말랑한 분위기다. 여기에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자는 김일환 소장 이하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마주치는 직원들의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감도니 어둡고 딱딱할 것이라는 교정기관에 대한 편견까지 무너뜨린다.

오늘 안내를 맡은 총무과의 송재훈 교사가 여기에 슬쩍 귀뜸을 엿어준다. 요즘 활기찬 이 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다.

“여주교도소가 지금 족구 열기로 뜨거워요. 각 부서별로 16개 족구팀을 만들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점심시간에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아주 치열합니다.”

직원들이 모였다 하면 족구 연습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쁘고 결승전 날에는 근사한 삼겹살 파티까지 열 예정이라니 족구대회는 반복되는 교도소의 일상 속에서 짧지만 즐거운 이벤트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여주교도소는 남다른 소통과 가족애로 똘똘 뭉친 조직으로도 유명하다. 여주시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이곳에 오롯이 모여있는 직원들 간의 친분도 두텁고 상호배려가 넘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서로 돕고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관사팀들도 밖에 나가 딱히 즐길 데가 없으니 서로 손가락 숫자를 알 정도로 끈끈하게 뭉칩니다.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테니스도 즐기고요. 족구대회도 정기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상사나 선배님들도 굉장히 유연하시고 친화적이라 그런 분위기가 후배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채병준 교사(사회복지과)와 정찬승 교사(분류심사과)가 입을 모아 이곳 여주교도소의 분위기를 자랑했다.

집중인성교육, 장애인교육, 직업훈련교육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여주교도소를 설명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더 있다. 직업훈련과 집중인성교육, 장애인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여주교도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체차운전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보기기운용, 양식조리, 자동차정비 등 총 4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행자 교육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자격시험도 매년 100% 합격률을 자랑하다가 작년 그 기록이 깨져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타소 수행자들이 저희 교도소로 훈련을 많이 신청하는 이유기도 하지요.”

직업훈련과 정민성 교도의 표정에서 남다른 자부심이 넘쳐난다.

집중인성교육과 장애인교육 또한 여주교도소의 특화된 부분이다. 특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경우 인성교육실은 반드시 거쳐 가는 필수 코스다.

“저희 소는 2013년부터 인성교육전담기관으로서 집중인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틀을 개발하다시피 한 소였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교감은 집중인성 교육의 특징으로 수행자 간의 상호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을 들었다. 집중인성교육으로 수행자와 교정공무원 간 소통까지 원활해지면서 수행자들의 직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 통제나 규칙에도 잘 따라준다고 설명했다. “여주교도소는 인성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며 “교정교화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교도소”임을 몇 번이나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는 여주교도소

장애인교육 역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약 70여 명의 장애인 수행자가 있는 이곳은 2012년 장애인재활종합센터가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기관으로서 그림은 물론, 판화 작업, 수공예품 등 다양한 미술수업을 통해 장애인의 교정교화, 재활의지를 북돋고 원만한 수행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장애인재활종합센터는 여주교도소에만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소가 장애인전담교도소라고도 불리는데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장애인 수행자들이 주로 같은 수용동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담교도소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건강이 안 좋은 수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서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수용동에 갖다 놓은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수행자들이 많은데 그걸 안하면 방에만 있어야 하니까 교육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취재팀이 방문한 날은 매마침 소 내에서 집중인성교육과 장애인교육이 있었던 날이었다.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는 박은수 샌드아트 강사가, 장애인 미술교육에는 장희은 강사가 참여를 했다. 두 강사 모두 저마다의 학습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육이 거듭될수록 수행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느끼면서 교육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 350명, 수행자 1,400명. 대형 교정기관은 아니지만 알토란 같은 내실로 교정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 잡은 여주교도소. 이곳의 모든 도전과 혁신이 향후 우리나라 교정미래의 기름진 밑거름이 되길 바라본다.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직원들이 여주교도소를 말한다



교감 신현성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과는 인원도 많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가족만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행자들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장애인 교육과 인성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우리 여주교도소! 최고입니다.

교사 채병준

집중인성교육 담당자로서 수행자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다른소에서 가서 편지를 보내오는 수행자들도 있는데 정말 뿌듯해요.



교도 김민금

우리 소는 여직원들의 숫자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딜가나 주목을 받지요. 전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여사에서 근무하는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늘 웃으면서 수행자를 대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해주는 수행자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교도 나재근

보안과에 있다가 복지과에 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업무를 선배님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주교도소의 일원이라는 게 정말 행복하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후배들도 그렇게 챙겨주고 싶어요.



샌드아트 강사 박은수

이곳 여주교도소에 샌드아트 강사로 출입을 한 지 7년이나 됐습니다. 샌드아트로 동물, 가족애, 동물, 희망 등이 담긴 스토리를 만들어 강의를 하지요. 샌드아트를 통한 교육의 목적은 마음을 순화시키고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주교도소 직원분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거듭되면서 수행자들이 점점 마음을 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장애인 미술교육 강사 장희은

저는 이곳에서 3년째 장애인 미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기초 부분, 색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수업이라 선긋기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점점 수행자들의 색깔과 표현이 밝아지고 다양해졌고요. 여주교도소 직원분들이 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3년이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국민 mini 인터뷰

외부 강사들이 바라본 여주교도소



글로벌 국제화시대에 외국어는 필수!!!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합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대화도 나누지 못한다. 과연 왜 그럴까? 그것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현재의 시대,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세계는 하나'라는 말이 당연시 될 것이다. 예전에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 말했지만 지금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 웬만한 능력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들처럼 외국어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정공무원들도 외국어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 나이에 기억력도 없고 외국 나갈 일이 있나' 또는 '내가 외국어 쓸 일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이상이며,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외국어 한 가지 정도는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면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외국어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 공용어인 영어다. 영어는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선택한 언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사용 언어별로 인구수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고 그 뒤로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순이다. 중국어와 인도어가 순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 때문이다. 따라서 그 두 언어를 빼면 영어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32개국 6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국가로는 최대이다. 스페인은 물론 중남미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마이애미,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다. 하루는 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여러분 어떤 외국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겁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아 스페인어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벌써 내년이면 졸업반이다. 그리고 교수님은 "어떤 외국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 역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속뜻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외국어에 임하라는 말일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그 나라의 언어를 더욱 쉽게 습득할까 싶어 2016년에 교수님, 학우들과 스페인으로 문화탐방을 갔다. 스페인에 도착해서 본 유럽의 문화는 절로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 프라도 박물관을 보고, 말로만 듣던 람블라스 거리도 걸어보면서 중세시대의 건축물을 마음껏 느껴 보았다. 그때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절실함이 생겼다. 그것은 비단 나쁜 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해외에 나가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불편하고 외국어에 대한 간절함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좀 더 멋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꼭 외국여행을 해보길 바라고 외국어를 반드시 공부했으면 좋겠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가족에게...



저는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마치고 모두가 바라는 대기업에 취직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치 성공을 예약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IMF사태가 발생했고, 저는 군대냐 진학이냐 라는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학위를 땀고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해 대위로 진급하기까지 8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장교라는 직업의 특성상 임지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계속 남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을 했고, 육아와 살림에 부담을 느꼈던 아내의 권유로 전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시작한 사업은 막힘없이 잘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설마 내 인생에서 범정에 서는 것은 물론 차가운 벽돌로 둘러싸인 이 삭막한 곳에 갇혀 지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현실에 방심한 탓인지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위암수술을 받으시게 됐고, 아버지는 폐쇄성 폐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었는지 자식들에게 알려지도 않고 그렇게 병을 키워 오셨던 것입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하느라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한 번 기운 가세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니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 지기 시작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을 걸돌기 시작했고 거의 매일 술로 시름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주사고를 내고 첫 번째 징역을 5개월 동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오니 아내는 이미 차가와 질 때로 차가와져 위로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세 아이가 눈에 밟혀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내의 시선을 피해 육아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간 상처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해 줄 수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따뜻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전의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했고 직장을 구해 봤지만 40대 중년인 나에겐 그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사회현실을 느끼면서 일용직을 알아보던 중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수도 적당한 그런 채용 문자를 받고 망설일 것 없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출근 첫날 몇 개월 만에 내손으로 번 일당 10만 원을 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던 아내와 아이들의 환호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려는데 웬 남자 3명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보이스 피싱! 제가 가족을 위해 가장 노릇 한다고 했던 일이 그 무섭다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가족들과 헤어져 구속되었고, 아내도 지난번과는 달리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진심을 알기에 백방으로 저를 도울 방법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엮힌데 덤친다’고 절망적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지인이 판사 회유와 변호사 선임 그리고 합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기각까지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까지 3년을 징역에서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느끼고 가족들을 위기에 빠지게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갑자기 생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자신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행했던 악행이 조금씩 쌓여 제게 돌아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저에게 벌어진 일들은 제가 원인인 것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막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이 피눈물 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 나 남은 인생을 오롯이 가족들에게 바치고 가족들 위해 살 것이라고 맹세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上)*

- 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외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회복적 사법정의(Resorative Justice), 교정복지실천, 사례연구,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급속하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는 국민들의 삶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환경이 조성되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이 발생되며, 범죄와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배임호, 2005).

이러한 다양한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특히, 범죄문

*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김나영 조교(숭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고와 큰 기여에 고마움을 표함.

**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글은 2019년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접수일(2019. 3. 10), 심사일(2019. 3. 25), 수정일(2019. 3. 26) 게재확정일(2019. 3. 28)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사회에서의 범죄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해지고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응보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인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가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범죄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한 대화(dialogue) 과정을 거쳐, 발생한 잘못된 행동(wrong doings)을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Zehr, 1990).

18년 전인 2001년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이 교정 현장(교도소 내)에서 우리사회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로¹⁾, 교정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예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너와 함께 프로그램(With You)', 상담명령 대상자를 위한 '회합 프로그램', 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 등이 있다(김문귀, 2015; 김은경, 2009; 한영선, 2015).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제도권에 도입되고 일부에서나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에게 프로그램 이후 사후관리(follow-up service)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없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프로그램에는 범죄 가해자가 참여하게 마련인데, 프로그램이 일단 종료되면 사후에 지속적인 교정활동을 위하여 접촉하거나 연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당부분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흉악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음에도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단기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그 어떤 후속적인 케어(follow-up care)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자는 재범으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사회에서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정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며, 교정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1) 이 프로그램은 2018년 3월호「교정연구」에 게재된 배임호·박일연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 연구-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정복지실천과 개입의 중요성을 느끼고, 18년 전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 17년 동안 사후관리(follow-up service)와 서비스 제공 등의 개입 내용과, 이를 통해 그 참여자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교정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정의

교정복지란 Correctional Welfare(또는 Correctional Social Work)로 번역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 영향(consequences or harm)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배임호, 2007). 이러한 교정복지의 개념에는 범죄자와 범죄피해자, 그들의 가족, 나아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문제해결과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자(restore)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이 포함된다(배임호, 2007).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와 관련하여 아직 제도화된 것은 없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죄인들의 교정교화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박창진, 2011).

우리나라에서는 교정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덜 받고있는 실정이다(조홍식, 2014). 이는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도움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홍봉선, 2007).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고유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조홍식, 2014).

선진 교정복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의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배임호, 2007).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이다.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범죄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들의 복지가 복구되고 향상되는 일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해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를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게 됨으로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 있음을 볼 수 있다(배임호, 2007).

처음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북미의 원주민들 사이, 또는 뉴질랜드의 마오리(Maori)부족, 또는 세계 여러 곳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 사이에서 고유하게 범죄자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배임호, 2007). 실질적인 회복적 사법정의의 시작은 1974년 캐나다의 온타리오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이며, 이후에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으로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가족집단대화(Family Group Conferencing), 써어클(Circles) 등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Zehr, 2002.).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서는 범죄란 법을 위반한 법범행위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며, 그 사람에게 손상(harm)을 입혔다고 보는 것이다(Zehr, 1990).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즉, 범죄로 인한 '필요'와 '의무'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이루어질 때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이루어진다(Zehr, 1990).

이는 기존의 응보 중심의 사법정의와는 반대된다. 현행 사법체제에서는 범죄는 위법행위로써 국가를 거역한 것으로 보고, 법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이에 따르는 고통을 부과한다(배임호, 1995). 이 관점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었는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어떻게 처벌받아야 마땅한가?'가 주요 관심사라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 입은 자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무슨 의무를 누가 행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배임호, 2007).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를 교정복지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서 연계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는 매우 드물다. 그 한 실례를 든다면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 실시된 “청소년 갈등해결 써어클 (Conflict Solution Circle) 프로그램”²⁾

을 들 수 있다. 7월과 10월 각 5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써어클 열기, 관계형성, 피해자-가해자 입장 생각해 보기, 다양한 그룹활동, 공감과 경청,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를 통한 관계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교정복지의 이론과 지식, 가치와 철학, 기술들이 활용되고 비행청소년들이 자신과의 관계회복, 가족 및 학교 혹은 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 교정복지의 실천

교정복지 실천이란 교정복지 실천 현장에서 교정대상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실천이론, 및 기술을 근거로 개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양식,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나 가용한 자원 등의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배임호, 2007).

효과적인 교정복지 실천을 위한 자질과 태도를 알아보면, 먼저 인간에 대한 존엄과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수용과 비심판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온화함(warmth)과 진실성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조홍식, 2014). 마지막으로 공감(empathy)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교정대상자 사이에 긍정적이고 상호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법무부, 2007). 이러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범죄자 혹은 비행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교정실천 현장의 특수한 환경이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교정복지 대상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정복지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교정복지 대상 클라이언트는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가해자 본인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하지만 가해자일지라도 어떤 범죄의 가해자인지에 따라, 또는 초범인지 재범인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등에 따라 그 특성은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반적인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범죄의 대표적 발생 원인은 낮은 자이 통제력, 낮은 자이 존중감, 높은 긴장감 및 스트레스, 높은 공격성이라고 볼 때, 가해자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홍성열, 2012; Beichler et. al. 2003; Mazarolle et. al. 2000; Crick, 1998). 또한 충동성이나 분노, 불안의 수준이 일반

인보다 높다(황성현 외, 2015). 특히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속으로만 화를 느낄 뿐 이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맞서지 못하고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다가, 상황에 맞지 않게 과격하고 공격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은희·강승호, 2010). 또한 초범자일 경우에는 무능함, 외로움, 좌절을 느끼며 내향적이나 심적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이 범죄의 결과로 교도소에 수용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 수용자의 6.4%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라고 밝혔다(양옥경 외, 2008). 미처 발견되지 않은 수용자나 교도소 내에서 새롭게 발병한 환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박종의 외, 2013). 교도소 내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 분노조절, 불안증, 적응문제, 정신분열 등 등 매우 다양하다(Boothly, 2000).

또한 수감 당시에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감시설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상 수감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박종의 외, 2013). 특히 수감 후 가족의 외면 같은 사회적 지지 체계의 단절, 사회 시각에 대한 부담감과 자책감, 자유와 사회적 지위를 잃은 상실감 등이 있다(법무부, 2007). 또 교도소의 물리적 열악함, 생활의 불편, 자유를 박탈당한, 사생활 박탈과 강한 통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신연희, 2015). 이뿐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겪어본 경험이 21.8%(박종의 외, 2013)라는 사실은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과 교도소에서의 적응을 위해 전문적이고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일정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출소하게 되어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홍봉선(2002)은 출소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급변한 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실 사회와의 괴리감 경험, 둘째는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좌절 및 사회에 대한 원망, 셋째는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과 심리적 갈등, 마지막은 주변의 과거 범행 동료들로 인한 재범의 위험이다(홍봉선, 2002). 나이가 출소 후에는 어색한 가족 관계, 사회에서 없어진 자신의 자리,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최관, 2015). 한동안 단절되었던 사회에 갑자기 적응해야 하고, 절박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 떠밀리듯 취업하게 되며, 전과자 신분이라는 것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조희원·도광조, 2014). 또 취업 중에도 전과자라는 신분이 밝혀질까 두려움을 느끼며,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까하는 양가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최관, 2015).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의 여러 특성들로 볼 때, 교도소 내에서의

수용 기간에는 물론이고 출소 후 사회적응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교정복지 대상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교정복지 실천의 개입

교정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역할로는 상담자, 안내자, 중재자, 교육자 역할이 있다(박용순, 2008). 상담자 역할은 이들이 처해 있는 제반상황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상담해주는 것이고, 안내자 역할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 중재자 역할은 수용자와 가족 간의 갈등관계 해결, 실무자 간, 실무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가 효과적이도록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교육자 역할은 교정대상자의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변화가 촉진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박용순, 2008). 교정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개인과 환경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응용이 중요하다(최옥채, 2010). 교정복지 대상자의 문제해결과 개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형성과 면접기술, 개입 활동에 필요한 격려, 팀워크기술, 케이스관리 및 종결기술, 평가기술, 다양한 차원에서의 각종 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 등도 교정복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배임호 외, 2007). 또한 교정복지 실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적용방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격상의 문제, 위기상황, 실직, 부부갈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격려, 지지,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박영숙, 2008).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 교정복지 실천 개입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교정복지 대상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교정복지 실천가의 개입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먼저 수용자가 수용 생활에서 불안요소를 극소화해서 잘 적응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며,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으로 도울 수 있다(최옥채, 2010).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자유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하고 때로는 극단적이 될 수 있는 감정들을 다루어야 하며, 매일 단조로운 일상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이윤호, 2015).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여 확대해가고, 이를 수용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연계할 수 있

2) 이 프로그램은 1차 2018년 7월 27일부터 주회 5주 동안, 그리고 2차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주회 5주 동안 배임호 교수(송실대의 책임 하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정의를 공부한 연구진이 진행 및 실시하였다.

다(최옥채, 2010).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소자가 규정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범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작업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작업장에서는 주어진 작업에 생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동료 수용자와의 관계 및 교도관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적인 상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끔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최옥채, 2010).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교정복지실천을 위한 개입이 이어져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자를 다시 범죄하게 만드는 위험요인들을 줄여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요인으로 고용, 거주지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가족관계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박선영, 2012). 특히 부부 혹은 부모-자녀 등 가족들 간의 불신과 상처가 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가족지원사업이 요구되며, 출소자의 취업 지원 전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교정복지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조희원·도광조, 2014).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근교 A교도소의 수용자가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에 2001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약 17년 동안 사후관리(follow-up) 받은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변화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의 접근보다는 질적 연구방법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7년간 한 사람의 삶과 그 변화과정, 그리고 연구자의 다양한 개입은 양적 연구방법의 척도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01년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에서 실시한 Sycamore Tree Project(이하 STP)³⁾에 참여한 살인 케이스이다(배임호·박일연, 2018). 참여자는 살인죄로 7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재소하고 있던 중에 STP에 참여하였고, STP 이후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이하 VOMP)이 진행되었다(배임호·박일연, 2018). 연구참여자가 VOMP에 참여결과 합의된 사항은 그가 자신의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족이 연구참여자로부터 직접 서신을 받아보는 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당시의 프로그램 진행자(facilitator)였던 본 연구자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서신은 연구참여자와 본 연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

출소 후에는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이하 아청교원)에서 실시한 가해자 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아청교원의 자매기관인 (사)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를 통하여 계속하여 사후지도(follow-up)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케이스에 대하여 개입하게 된 배경, 개입 과정,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 대화, 인터뷰, 정부 기록, 활동 내역, 다양한 관찰, 서신 교환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일반적 질적 연구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로 수집된 데이터인 서신, 인터뷰 자료 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신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이하 A씨)와 교환된 서신들을 반복하여 여러 번 읽으며 그들 속에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사후관리(follow-up)를 시작하게 된 배경인 STP의 참여 후 느낌과, 직접 피해자 가족(피해 당사자는 사망)을 만나 VOMP에 참여한 경험, 그 이후 교도소에 수감기간 동안의 생활, 출소 후 사회에서 적응 과정과 그 가운데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극복하는 과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2) 인터뷰 자료

본 연구에서의 인터뷰는 STP 실행 동안, VOMP 실시 과정에서, 이어진 가해자 자조모임들이 있을 때, 연구자와의 개인적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인터뷰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A씨와 17년 이상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과정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기초하여 현재의 어려움들과 고민, 변화과정 등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익명성 보장을 알렸으며,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내용이나 연구자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

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서신이나 인터뷰 등의 자료는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신상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삭제하거나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명칭으로 대체하여 연구참여자의 가장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 개요 및 소개

A씨는 살인자로, 살인 사건 당시 23세의 군인이었다. 살인 피해자는 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하자고 선언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고 군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를 만나 건물 옥상에서 다투던 끝에 흥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되었다. 그 직후 A씨 자신도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였으나 살아남았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큰 부상과 한 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을 하기 전인 2003년까지 수도권외 A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에서 실시한 Sycamore Tree Project(STP)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A씨가 STP에 참여한 것은 교정 당국의 선택이었다. STP는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되돌아보아 잘못을 인정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2001년 초에 A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되었다. STP에 참여한 A씨는 STP에서 간접적인 범죄 피해자⁴⁾들을 만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실제 자신의 살인사건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가해자-피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를 진행하였다.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을 통해 2001년 후반 중재자와 기관 소속담당관과 더불어 A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의 가족과의 만남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만남을 통해 A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어떠한 어려움들과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사죄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4)가해자가 직접적인 범죄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시 프로그램은 다른 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되었음.

이후 A씨는 교도소 내에서 공장의 반장 역할을 맡으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재소자와의 갈등이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등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A씨와의 지속적인 서신 교환으로 그가 주변 재소자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상담하고 격려했다. 또한 A씨는 기독교인이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연구자는 신앙적으로도 그를 주위의 인적자원들을 통하여 지지하고 격려했다.

2003년 가석방 출소 후에는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가해자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아시아청소년·교정연구원과 연구자는 출소 후의 사회 적응과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물질, 인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대학교 입학의 의지를 보인 A씨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대학교 수업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공부하도록 지원하였다.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는 교도소에서 당시 배운 직업훈련기술을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 도중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여 C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S공고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뒷받침이 되어, 자신의 전공을 살려 S시의 해외 자동차부품 제작회사에 취직하였고,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영구입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3) Sycamore Tree Project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주된 과정으로는 인테이크 및 자료수집 단계, 실질적 중재를 위한 준비 단계, 직접 만남 단계, 보고 및 모니터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3월 「교정연구」에 게재된 배임호·박일연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 연구-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람.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 선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3살, 4살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두 아이가 딸이다 보니 아동 성범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데,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교정공무원분들이 교도소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었지만 절대로, 두 번 다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교정공무원에 대해 소위 일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냥 TV프로그램을 통해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는 지인의 자녀가 교정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정공무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선 저와 같은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을 잡는 경찰들보다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도소에서 교정교화에 힘쓰고 계신 교정공무원분들이 더 소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범죄자들의 교화에 애쓰시고 계신 교정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희망의 빛을 밝혀준 그 분

자영업자 문지훈

저는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교정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실 중·고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도 손을 놓은 문제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반아니 학교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떠나게 됐고, 학교 밖에서 범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무서울게 없던 저는 구치소에 수감된 게 마치 혼장이라도 되는 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교정공무원 덕분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그 공무원 분은 처음부터 나를 안쓰럽게 여겨 주셨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눈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점차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빠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벌 수는 없었지만 항상 감사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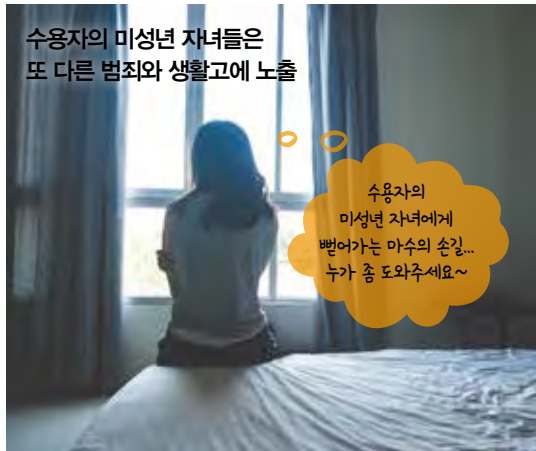
「형집행법」 일부 개정,
「형집행법」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형집행법」
그 주요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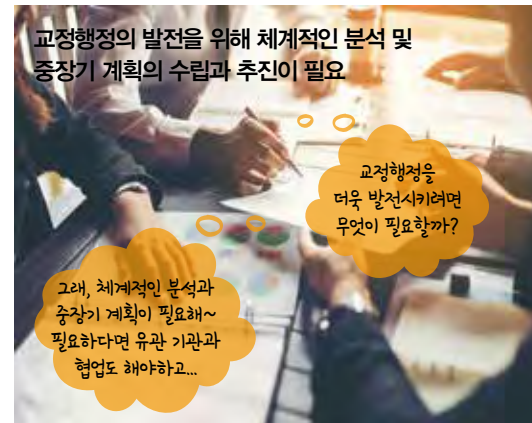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4월 26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개정법률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강화



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신입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고,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법원과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등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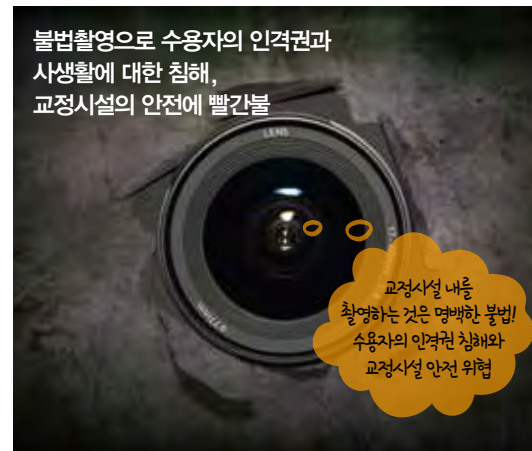
무인비행장치를 비롯해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정시설 내 소지 금지물품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성수용자에 대한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이제부터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 유지·회복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시설 내부 허가 없이
녹화·촬영 시 처벌**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달라진 「형집행법」을 바탕으로 교정행정과 관련한 당면 과제를 풀어내고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교정정책 수립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CARDNEWS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관련 —

지난 4월 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혁신기술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혁신수요 제시 및 R&D·실증 과정의 참여, 개발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법무부 교정본부 외 6개 수요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김명철 보안정책담당장을 비롯해 총 5명이 참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과 조달청 정무경 청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인사말 이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구성

과정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유덕 기술사업부단장이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다. 정 단장은 “공공 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R&D, 실증, 공공조달을 연계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사업화 촉진 및 시장 창출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2018년 12월부터 2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유덕 단장의 사업보고가 끝나고 3개 공공기관(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주요 R&D 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과제발표는 교화방송센터 최미영 아나운서가 수용자관계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교정기관에서는 과밀수용과 만성 인력부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증가량이 수용인원의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수용자 1명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에 평균 2.4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차분하지만 또렷하게 과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처럼 법무부 교정본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은 조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심장박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손목 착용형 스마트밴드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수용자의 신체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현재 교정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점검과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자살 및 심정지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밴드 개발 전담팀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의 과제는 앞으로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 공공기관에서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정책현장 방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4월 4일과 5일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와 3교도소를, 18일과 19일에는 흥성교도소와 군산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책현장 방문 직후에는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출소에 예정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신용관리방법 등 금융교육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다.

2019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

지난 4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9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106명이 참가하여 총 7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형자들은 실내장식 등 18개 직종에서 금상 20개, 은상 17개, 동상 17개, 우수상 16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번 지방기능경기대회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2019년 10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지난 4월 23일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반입금지 물품 추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교정시설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은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52페이지 참고)

제15회 교정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4월 26일 제15회 교정정책자문단 회의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개최되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승만 교정정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 방안과 교정시설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기계적 징벌처분 지양, 징벌종류 및 징벌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교정정책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1회 교정의료 실무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4월 15일 제1회 교정의료 실무자문단 회의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되었다.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교정본부 의료과장 등 3명과 의원관, 약사 등 교정기관 의료인으로 이루어진 실무자문단 4명이 참석하여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토의하였다. 다음 회의는 2019년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외부강사 초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4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규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4월 18일,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일과 루트를 직접 방문하고 소개하는 등 기관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일일 구치소 체험을 하였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감사나눔 미디어 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안양교도소는 4월 4일 '감사나눔 미디어그룹'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용자에게 신문제공, 강의 재능기부 및 인터넷 기사 게재, 동영상 제공을 통해 교정교화의 효과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서양화가 유인중 "죽마디" 초대전 개최

수원구치소는 4월 11일부터 3개월간 수원구치소에 마련된 문화공간인 '소원갤러리'에서 '따뜻함'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도시풍경을 소재로 한 유화 작품 등 26점을 선보이는 '유인중 초대전'을 실시한다. 작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에서 마주한 색다른 문화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작품에 담았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참관 행사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4월 19일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을 통해 학생들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며 서울동부구치소의 최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제74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 실시

인천구치소는 4월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청사주변에 영산홍 200주 심기 및 거름주기를 진행하였으며, 간단한 다과 및 음식을 준비하여 전 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양일성 제74회 식목일 맞이 환경정비 및 꽃심기 행사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4월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구내·외 환경정비 및 꽃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은 겨우내 어지럽혀진 시설물 등 소내 주변을 정비하고 화단과 나무에 거름을 주었으며, 외부정문 진입로와 청사 화단에 꽃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한빛예술단 초청 희망음악회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22일 직원 및 수용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초청 희망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영화 '미션' OST 'Gabriels Oboe'와 'Just a closer Walk', 드라마 도깨비 OST 'Beautiful Life', 유리상자의 '같이 걸을까' 등을 공연해 수용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제74회 식목일 맞이 환경정비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화단 가꾸기, 잡목제거 등 교도소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봄을 맞아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정기관의 밝고 화사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출소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여주교도소는 4월 23일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해 영우건축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영우건축은 목공야카데미하우스 등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교정시설 주변 환경정비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교정시설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수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비(施肥) 및 전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외벽 펜스에 얽힌 넝쿨을 제거하는 등 직원 모두가 아름답고 깨끗한 교정시설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 하였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춘천시립예술단과 업무협약 체결

춘천교도소는 4월 22일 춘천시립예술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초청권 배부 등을 통한 행복한 직장만들기 및 수용자 교화행사, 춘천시립예술단의 공연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원주 해피마인드 심리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원주교도소는 4월 12일 외부 상담 전문기관인 원

주 해피마인드 심리치료센터와 원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협약식을 마치고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4월 12일 강릉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역점시책 추진상황 및 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유병철 청장은 업무현황 청취 후 중앙통제실 및 구내·외 순시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월교도소는 4월 16일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주)와 '영월군인구증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현재 비상대기숙소 59세대에 추가로 20세대를 확보하여 직원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2019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4월 1일 별관회의실에서 2019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정기총회는 2018년도 주요사업 경과보고,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신규 사업을 인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2019년 제1회 검정고시 실시

소망교도소는 4월 13일, 2019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하였다. 소망교도소, 여주교도소 수형자 총 24명이 참여한 이번 검정고시에서 수형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학업실력을 발휘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대구지방교정청, 소속기관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4월 29일 교정행정과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직원과 교정사고 유공직원, 1/4분기 교도작업 생산왕 직원 등에 대한 이달의 모범 교도관 포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포상식 후 티타임과 오찬간담회에서는 격식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4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 이동차량을 이용한 헌혈행사를 기관 내 연무관 앞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혈액부족 현상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의 씨앗이 되고자 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두 26명의 직원이 동참하였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장애인수용자에게 희망을, '사랑의 멘토링 데이' 개최

부산구치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수용자 등 20여 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사랑의 멘토링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수용생활 중 겪고 있는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경북북부 교정기관, 대명리조트 청송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으로 4월 24일 우왕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청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북부교정기관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동시에 '대명리조트 청송'의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북북부 교정기관 직원들은 '대명리조트 청송'의 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민 '벚꽃행사' 실시

창원교도소는 4월 3일, 흠날리는 벚꽃길 아래에서 '벚꽃행사' 및 '벚꽃 길 개방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직원들이 평소 갈고닦은 노래·악기연주 등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벚꽃 길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여 유연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교정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4월 9일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해햇빛사랑 봉사회의 봉사활동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자원봉사회에서 직접 제면기, 밀가루 반죽, 춘장, 양파 등 장비와 재료 일체를 준비해와 교도소 취사장에서 봉사회 회원들과 수용자들이 함께 정성껏 자장면을 조리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신규 공무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4월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임용식에는 정창현 소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신입 공무원들을 축하하였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공무원 참관 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4월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 2차 검진 실시

대구구치소는 4월 11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 2차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활동량계 지급, 건강상담, 미각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법무부장관기 테니스대회 우승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13일 정부과천청사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2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교정공무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여가생활 활성화 차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5개 팀이 참여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제74회 식목일 맞이 청림나무 가꾸기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4월 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소장 등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청림나무 심기 및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소속 직원들의 정령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림나무 동산과 기관 진입로 주변으로 나무심기, 거름주기, 잡초제거, 낙엽수거, 고사목 재정비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포항 한동글로벌고등학교 부활절 찬양 공연 개최

4월 9일 포항 한동글로벌고등학교 2학년 학생 33명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기념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은 부활의 참뜻을 되새기고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계획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한마음 코러스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4월 25일 대강당에서 소년수형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코러스 합창단 초청,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문화 소외계층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희망을 고취하고 심적 안정을 통한 활기찬 수용생활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강범석 충주구치소 교정위원 참관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4월 16일 충주구치소 교정위원 35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및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직원들과 함께 교도소 구내의 수용거실 및 작업장 등 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관리 및 처우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수형자 문화공연 실시

울산구치소는 4월 22일 화목봉사회 소속 봉사단원 18명을 초청해 수용자 문화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체험공연으로 자기 내면의 성찰과 억눌린 자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4월 17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수형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김경식 교정위원의 색소폰 연주, 뮤직패밀리의 기타 연주와 준비해온 다과를 함께 나누며 장애수형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생활로 인한 경직된 마음을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자장면 데이 행사 개최

통영구치소는 4월 23일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자장면을 지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교정위원 13명과 요리사 정일훈 등 3명이 통영구치소에 방문하여 손수 자장면을 요리하여 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현 제74회 식목일 기념 행사 실시

밀양구치소는 제74주년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교정시설 주변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식목일 행사에는 송엽국 모종 50개와 영산홍 200주를 식재하였으며, 기존 수목에 거름주기, 주변 청소하기 등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상주시의회 의장단'참관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는 4월 16일 상주시의회 의장단 및 의회 직원들을 초청하여 교도소 구내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교도소의 지역사회 기여, 공헌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재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4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은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대전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대전서부소방서 직원 참관 행사 실시

4월 17일 대전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직원 25명이 대전교도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참관은 시설 내 화재 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향상 및 교정행정 이해증진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교도소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중앙감시대 및 수용동, 공장 등의 순으로 참관이 이루어졌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11일 청주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회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수용자 또한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4월 15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식에서 천안교도소장은 신규직원들에게 천안교도소로 임용된 것을 축하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청렴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교도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제74회 식목일 기념 행사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4월 3일 홍순철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수목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교정시설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서예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4월 15일 서예 작가 창포, 허유 등 10명의 서예 작품 12점과 수용자들의 수채화, 유화 작품 등을 소개 다목적홀에 갤러리로 꾸며 전시 감상하고,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된 작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봄날의 작은 음악회 개최

충주구치소는 4월 3일 음악동호회의 준비로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을 관객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노래 실력을 뽐내었고, 직원들은 경쾌하고 서정적인 노래를 들으며 봄날의 정서를 마음껏 느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제74회 식목일 기념 행사 실시



홍성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주변에 영산홍 식재, 기존 나무 가지치기 및 비료를 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청사 앞 화단 및 민원실 옆 화단의 식재 등 환경개선을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인에 대한 교정행정 이미지 향상 등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직원가족 초청 참관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5일 소속 직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행사에서는 교정홍보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자 생활거실 및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가족이 일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이 4월 19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를 방문해 교정행정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중앙통제실 등 구내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신규직원 환영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4월 15일 공직에 첫 입문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임용된 직원 4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신규직원들은 따뜻한 환영과 축하를 받은 후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구 ‘도시락 소풍 가는 날’ 오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12일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사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도시락 소풍 가는 날’ 오찬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사무실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야외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도시락 오찬을 즐겼으며 여유로운 봄 산책 및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등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제11기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11기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의 입학식 및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한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교정위원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정재형 전북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공고에서 열린 2019년도 전북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직종에 전주교도소 수형자 A 씨가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였다. 이번 수상을 통해 A 씨는 오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4월 3일 순천교도소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들이 참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내장식, 미장 종목에서 금·은·동메달 및 우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들에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청렴포스터 공모전’ 개최

목포교도소는 청렴의식 향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패러디 포스터 공모전’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였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포스터는 직원식당에 게시되었고,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수형자 ‘가족사랑 캠프’ 실시

군산교도소는 4월 12일 교정자원봉사자센터와 함께 수형자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날 수형자 ‘가족사랑 캠프’는 수용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형자 가족을 선정하여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수용자 정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제74회 식목일 기념 행사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가졌다. 많은 직원들이 참가하여 청사주변에 다정나무 50분을 심었으며, 기관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목 가지치기 및 주변 고사목 제거 등 환경미화작을 함께 실시하였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4월 9일 윤재홍 광주지방교정청장이 장흥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정책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윤재홍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장흥교도소의 주요 정책현안을 청취하였고, 일선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땅끝 해남 진로체험 홍보 행사 참가

해남교도소는 4월 2일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땅끝 해남 진로체험 홍보 행사’에 참가하였다.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해남교도소는 교정행정과 교도관이란 직업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학생진로지도 교사들은 발전된 교정행정 시스템과 다양한 진로지도관의 업무에 매우 흥미로워하였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신태인고등학교 참관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4월 5일 신태인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참관 행사와 더불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관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도소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도관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참관 소감을 전하였다.

교정공제회

회원 대여제도 개선

교정공제회는 대여금 신청 급증에 따른 대여금 지급 한도 제한으로 인해 대여금 처리 기간이 2~3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회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4월 12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직급여금(적립금) 범위 내 대여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퇴직급여금(적립금)을 초과하는 대여는 NH농협은행에 의한 「교정공제회원 단체대출」로 대여제도를 개선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의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 www.cmaa.or.kr)

국군교도소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실시

국군교도소는 4월 30일 가정의 달 맞이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카네이션 만들기’는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수용자는 직접 카네이션과 카드를 만들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의 정서순화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매년 ‘가족난민의 날’ 행사지원, ‘크리스마스 카드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이영일

제빵기능사반 운영을 통해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

창업베이커리반과 제과·제빵 기능사반을 운영하며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8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하는 등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훈련수료생의 출소 후 경제적 자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시에, 직업훈련교사 제과제빵 1등급 과정 교육을 수료하는 등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교정작품전시회 때마다 수용자들이 만든 수준 높은 제과·제빵 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행사를 마련하여 교정기관의 이미지 향상과 홍보에 기여하였다.

서울

대구

상담을 통한 수용자 심적 안정으로 교정사고 예방

2013년 9월 2일부터 포항교도소 보안과 기결2팀 생활지도 근무를 명받아 수용인원 수시확인 및 환자파악을 철저히 하여 조기 의료적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가 있을 경우 성실히 상담하여 고충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징벌·조사 및 엄중관리 대상자 등 특이수용자 동태파악 및 처우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포항교도소
교위 류영구



대전교도소
교위 광경섭

원칙에 입각한 근무자세로 수용질서 확립

보안2팀 소속으로 수용동을 담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한 근무자세로 수용자의 규율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수용자가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동 내 수용자들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별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하였다.

대전

광주

수형자 고충 해결을 통한 모범적 생활 분위기 조성

보안과 위탁1 작업장 담당근무자로 수형자 면담 및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형자를 발굴하여 영치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수형자들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방면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키고 모범적인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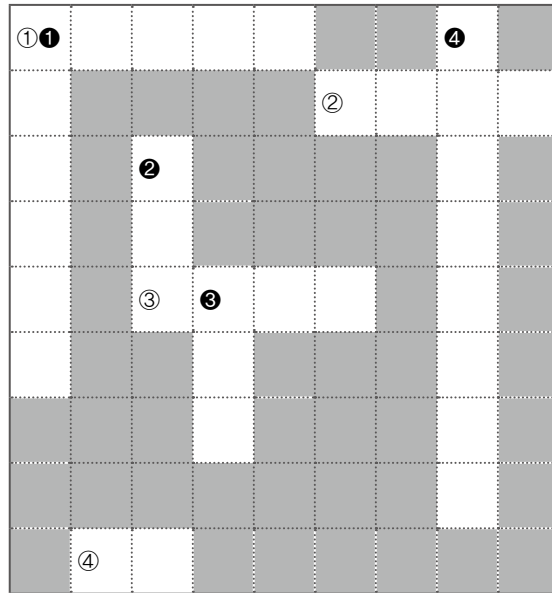


해남교도소
교위 송정훈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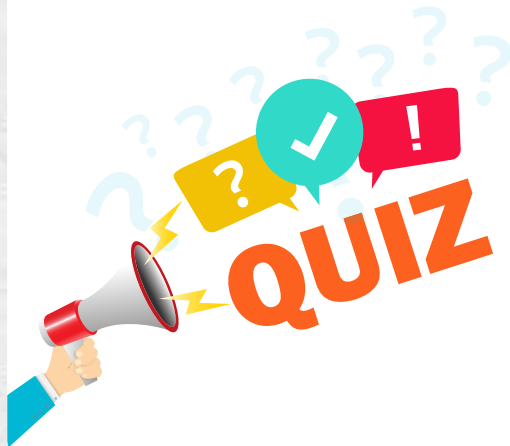


가로열쇠

- 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사원으로 푸른 지붕과 73m 높이의 첨탑이 우뚝 솟아 있고, 8,000여 명의 무슬림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원은?
- ②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의 약칭은?
- ③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 ④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명사이며,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로 협심, 협동심, 단합, 단결 등이 있는 이 단어는?

세로열쇠

- ① 1909년 3월 15일, 태황제 고종이 내린 교서에서 나라는 오로지 민의 것이라고 황실 스스로 선언한 이 선언은?
- ②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이 이르는 신조어로 관심과 권태기를 합친 이 단어는?
- ③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법은?
- ④ 무릎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국소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중장년층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이것은?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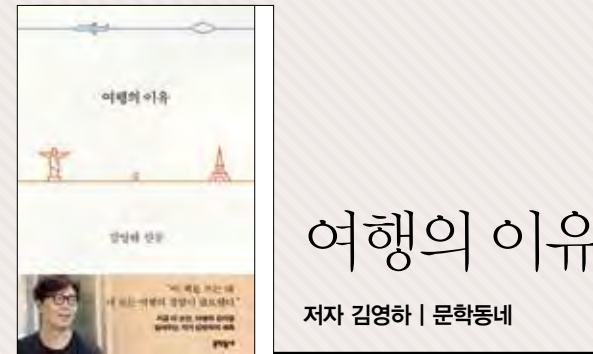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이 달의 추천 도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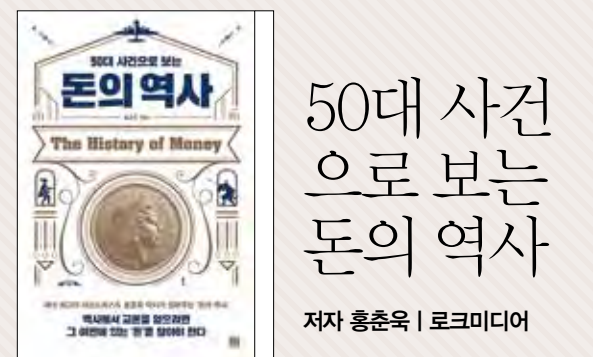
스크라테스는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는 '독서'. 독서를 통해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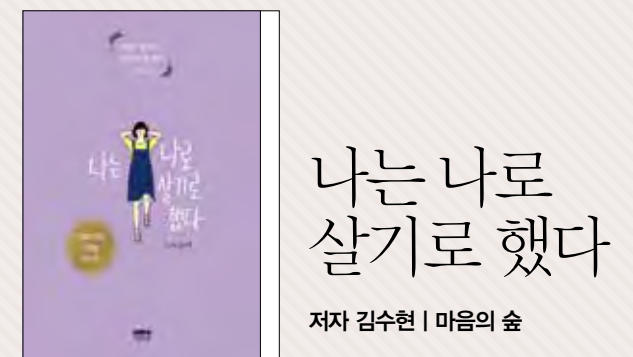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 김영하의 매력적인 이야기 『여행의 이유』.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아홉 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나온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온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던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다.



이 책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모았다. 행복은 여전히 먼 곳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흐려져 오늘도 '행복'을 찾는 일이 영 요원하게 느껴질 때, 이 책을 펼치면 어떤 페이지를 열든 푸가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해줄 것이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돈과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면서 세계를 바꾼 주요 사건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양한 도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금융학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돈을 배우고 더 나아가 세상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교정〉지는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월간 〈교정〉을 알차게 꾸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 배홍난 님(진주교도소 교감)

요즘 교정계에서 이슈가 되는 현업, 비현업 관련한 의견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 전연식 님(의정부교도소 교위)

월간 〈교정〉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새롭고 다채로
운 내용으로 좋은 정보 받는것 같습니다^^
지식과 감동을 모두 만족 시켜주시네요~~ 감사
합니다.

- 문인성 님(해남교도소 교사)

KBS 드라마 '닥터프리즈너'에 출연 중인 배우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주세요.

-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월간 〈교정〉에 꼭 무겁거나 교정 관련 주제가 아니
더라도 실생활에 유용한 팁이나 정보 등을 알려주
시면 조금 더 다수의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권동혁 님(여주교도소 교도)

언제나 좋은 내용의 월간 〈교정〉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
생하시고, 더 나은 월간 〈교정〉 부탁드립니다.

- 하우현 님(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도)

지난 호 퀴즈 정답

		②유	③결						④국
		네	리						민
①스	티	븐	스	필	버	그			참
			코		여				여
					행				조
②호	통	판	사		기				직
기									진
심		③애	민	정	신				단
							④의		



- 퀴즈 정답자**
-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 이상협 님(밀양구치소 교사)
 - 강승열 님(교정9급 임용후보자)
 - 이환주 님(교정9급 임용후보자)
 - 문정환 님(일반독자_대구 달서구)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독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화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영화 같은 하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월간〈교정〉 주인공은 ‘나야 나’



2019년 월간〈교정〉의 ‘교정 백일장’, ‘영화 같은 하루’, ‘추억을 담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지는 콘텐츠들입니다. 또한 월간 〈교정〉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정본부의 대표 매거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월간〈교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19년 매월
- 콘텐츠 : 영화 같은 하루
- 대상 : 월간〈교정〉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교정공무원
- 진행방법 : 신청한 독자가 원하는 것을 일정을 잡아 실행시켜준다.
- 신청방법 : 월간〈교정〉 내 웹사이트
이메일 _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월간〈교정〉 내 QR코드 스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월간〈교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 7. 12. - 7. 28. (17일간)
www.gwangju2019.com



광주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Official FINA Partners



National Sponsors



Institutional Partners

